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술과 자가유리치은이식술을 이용한 심미적 치근피개술의 치험례

전동영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근면 노출이란 치아의 정출이나, 치은퇴축으로 인해 치은변연부가 CEJ에서 치근단으로 변위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부착상실이다. 이러한 치은퇴축은 주로 과도한 잇솔질, 치주질환등에 의해 야기되고, 그외에 치조골의 골열개(alveolar bone dehiscences), 부적절한 치은 두께, high muscle attachment, frenal pull, 그리고 수복치료 및 치주치료중의 iatrogenic factor 등이 있다. 또한 얇은 두께의 치은을 가진 치아에 과도한 교정력을 가한 경우에도 치은 퇴축이 심화될 수 있다.

다른 문제들이 없는 치은퇴축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강위생만 유지하게 되면, 정상적인 치주건강의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은 퇴축으로 인해

부착상실은 치주염, 치아의순측면 이동, 치아외상에 의한 골열개에 기인하거나, 긴 상피부착 부위에 외상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치은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발현한다.

부착상실이나 골열개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치주조직의염증이 개선되고, 외상력이 조절되어 치은퇴축이 정지된 경우에도 심미적인 장애를 비롯해 지각과민으로 인해 효과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치주염 및 우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심미성과 예방치과적 의미에서 국소적인 토노출치근면에 대한 외과적 피개술이 다양하게 고안되었으며 E한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본 임상 증례에서는 자연치의 노출된 치근면에서의 부착치은 폭경의 증대 및 치근피개를 위한 경우와 교정치료중의 치주치료로 각화치은의 두께 증대와 함께 치근피개를 도모한 경우로 양호한 심미적, 기능적 결과를 얻은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